

2021년 2월 26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급락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1.61% Vs. S&P500 배당 수익률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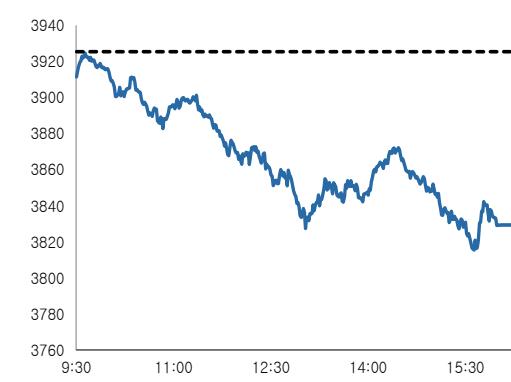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금리 급등

미 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보합권 출발. 그러나 10년물 국채금리가 S&P500 기준 배당 수익률 1.51%를 넘어서는 등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자 전 업종에 걸쳐 매물이 출회. 특히 성장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 장 후반 애틀란타 연은 총재 등이 금리 상승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으나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하락 마감(다우 -1.75%, 나스닥 -3.52%, S&P500 -2.45%, 러셀 2000 -3.69%)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6%를 상회하는 등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짐. 이는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난 주 84.1만 건에서 크게 감소한 73만건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 개선이 촉매 역할 한 것으로 추정. 여기에 장 초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채용 건수가 가속화되고 실업률은 조만간 4.6%~5.2%를 기록할 것”이라며 고용시장에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영향. 전일 파월 연준의장도 “최대 고용까지는 아직 멀지만 곧 고용지표는 다시 개선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또한 “경제 전망이 개선 되기 시작 했다”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러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금리 상승 속도를 높임. 여기에 7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5배)을 하회한 2.04배에 그쳤고 간접 입찰도 12개월 평균(63.6%)을 크게 하회한 ‘38.1%’를 기록. 이렇듯 채권 수요가 급감했다는 소식도 금리 상승 속도를 높인 요인

비록 파월 연준의장이 인플레 압력 지속 가능성에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 시장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번 7년물 국채입찰에서 이를 보여줌. 이 여파로 국채금리가 S&P500의 배당수익률(1.51%)를 상회하자 매물이 출회된 것. 그러나 국채금리가 1.75%까지 상승한다고 해도 40% 기업의 배당 수익률은 이를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한편, 애틀란타 보스틱 연은 총재가 “금리 상승은 아직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자 금리가 안정을 찾기도 했으나 영향은 제한. 결국 기업의 미래 이익에 대한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성장주의 상대적 매력이 위축 될 수 있어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 이 여파로 전체 시장의 하락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음

S&P500 장중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향률	Close	D-1	지수동향률	Close	D-1
KOSPI	3,099.69	+3.50	홍콩항셍	30,074.17	+1.20
KOSDAQ	936.21	+3.30	영국	6,651.96	-0.11
DOW	31,402.01	-1.75	독일	13,879.33	-0.69
NASDAQ	13,119.43	-3.52	프랑스	5,783.89	-0.24
S&P 500	3,829.34	-2.45	스페인	8,317.80	+0.58
상하이종합	3,585.05	+0.59	그리스	787.43	+1.63
일본	30,168.27	+1.67	이탈리아	23,063.55	-0.1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80%

국채 금리 급등으로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JP모건(-1.36%), BOA(-1.24%) 등 금융주 또한 하락하는 등 투자심리가 약화 되었다. 이런 금리 상승은 세일즈포스(-3.90%), 서비스나우(-4.18%) 등 소프트웨어, 애플(-3.47%), MS(-2.37%), 알파벳(-3.26%), 페이스북(-3.64%), 아마존(-3.24%) 등 대형 기술주, 테슬라(-8.06%) 등의 약세를 불러왔다. 대형 기술주는 여전히 규제 이슈도 영향을 줬다.

Nvidia(-8.22%)는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이는 반도체 칩 부족으로 수요를 따라 잡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인텔(-4.22%), AMD(-5.20%), 마이크론(-4.76%) 등 여타 반도체 업종 하락을 부추겼으며 바이든의 반도체 관련 행정명령도 구체화가 없었다는 점이 매물 출회 요인이었다. 이 여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80% 급락했다. 부킹닷컴(-6.97%)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단기적으로 여행 회복 규모 및 시기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발표 영향이 커다. 카니발(-5.70%), 로얄 크루즈(-5.20%), 디즈니(-3.31%) 등 여행, 레저 업종의 부진 요인이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96%	대형 가치주 ETF(IVE)	-1.87%
에너지섹터 ETF(OIH)	+0.27%	중형 가치주 ETF(IWS)	-2.47%
소매업체 ETF(XRT)	-3.07%	소형 가치주 ETF(IWN)	-3.22%
금융섹터 ETF(XLF)	-1.82%	대형 성장주 ETF(VUG)	-3.13%
기술섹터 ETF(XLK)	-3.50%	중형 성장주 ETF(IWP)	-3.5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3.10%	소형 성장주 ETF(IWO)	-4.24%
인터넷업체 ETF(FDN)	-3.71%	배당주 ETF(DVY)	-2.11%
리츠업체 ETF(XLRE)	-1.63%	신흥국 고배당 ETF(DEM)	-1.24%
주택건설업체 ETF(XHB)	-4.0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01%
바이오섹터 ETF(IBB)	-2.65%	미국 국채 ETF(IEF)	-1.33%
헬스케어 ETF(XLV)	-1.00%	하이일드 ETF(JNK)	-0.86%
곡물 ETF(DBA)	-0.34%	물가연동채 ETF(TIP)	-1.22%
반도체 ETF(SMH)	-5.58%	Long/short ETF(BTAL)	+2.41%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68.66	-2.00%	+8.54%	+21.58%
소재	467.40	-2.39%	+1.02%	+4.89%
산업재	772.43	-1.95%	+2.14%	+7.06%
경기소비재	1,287.06	-3.61%	-6.28%	-3.24%
필수소비재	660.18	-1.12%	-2.31%	-1.44%
헬스케어	1,321.95	-0.99%	-1.93%	-0.79%
금융	546.42	-1.81%	+2.82%	+13.44%
IT	2,279.75	-3.53%	-4.67%	-1.50%
커뮤니케이션	232.01	-2.56%	-2.48%	+5.44%
유틸리티	300.95	-0.98%	-4.71%	-4.15%
부동산	236.56	-1.59%	+0.04%	+2.5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금융, 인플레 수혜 업종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9% MSCI 신흥 지수 ETF 는 2.28%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9.8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일 한국 증시는 파월 연준의장의 인플레 우려를 잠재우는 발언에 기대 급등했다. 특히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현/선물 순매수를 확대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에서 인플레 압력 이슈가 재차 부각되며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통상 미국 금리가 오르면 미국으로 자본이 유출돼 신흥국 증시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2013년 5월 22일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언급만으로 한국 증시는 6월 한달 동안 6.7% 하락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의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경우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하락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파월 연준의장 등이 언급 했듯이 미국 금리의 상승 요인이 긴축 문제가 아니라 백신과 부양책에 의한 경제 정상화 과정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전히 금리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낮고, 장기 실업자가 많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 연준의 긴축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2013년 당시 신흥국은 경상수지 적자폭이 큰 상태였다면 현재는 취약점들이 훨씬 낮아져 있기 때문에 관련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장 초반 큰 폭으로 하락 출발 할 수 있으나,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 중심으로 반등을 하는 업종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 고용지표 개선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4.1% 증가해 수정치(4.0%) 보다 소폭 상향 조정 되었다. 1월 잠정 주택 판매의 경우는 지난달(mom +0.5%) 발표를 하회한 전월 대비 2.8% 감소했다. 2월 캔자스시티 연은 지수는 전월(17) 보다 개선된 24로 발표됐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나주(84.1만건)이나 예상(81.5만건)을 하회한 73만건을 기록했다. 4주 평균 또한 80만 7,750건으로 지난주 82만 8,250건을 하회했다. 다만, 텍사스 지역 정전으로 일부 신청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 주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월 미국 내구재 주문은 지난달(mom +1.2%) 발표를 크게 상회한 전월 대비 3.4% 증가했다. 운송은 지난달(mom +0.1%) 발표를 크게 상회한 전월 대비 7.8%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자본재의 경우 지난달(mom +1.5%) 발표를 하회한 전월 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상승폭 확대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경제 정상화 기대 등으로 상승 했다. 특히 장 초반 주가 지수 급락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하락 출발 했으나,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으로 연준위원들이 발언하자 향후 수요 증가 기대를 높이며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주 OPEC+ 회담 중국의 양회 결과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확대될 수 있어 관련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러화는 고용 지표 개선 등 양호한 경제지표 결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국채 금리 변화 등 여타 금융시장 변화로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 파운드화는 최근 강세에 대한 되돌림과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달러 대비 0.9%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미 국채금리 급등으로 달러 대비 0.8% 약세를 보였으며 여타 신흥국 환율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지표 호전과 국채입찰 결과 영향으로 장중 한 때 10 년물 국채 금리가 1.614%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 했다. 특히 7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인 2.45 배를 하회한 2.04 배, 간접 입찰이 12 개월 평균인 63.6%를 하회한 38.1%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 급감 영향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추정한다. 이는 파월 연준 의장과 달리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인플레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금은 달러 약세 불구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대 수익률 둔화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와 경제 정상화 기대로 상승했다. 대두, 옥수수 등 곡물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더불어 주간 수출 보고서에서 대두와 옥수수 수요 둔화도 영향을 줬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50%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3.53	+0.49	+4.96	Dollar Index	90.231	+0.06	-0.40
브렌트유	66.88	-0.24	+4.61	EUR/USD	1.217	+0.03	+0.65
금	1,775.40	-1.25	+0.02	USD/JPY	106.22	+0.33	+0.50
은	27,685	-0.87	+2.09	GBP/USD	1.4015	-0.89	+0.29
알루미늄	2,235.00	+2.31	+4.56	USD/CHF	0.9057	-0.09	+1.09
전기동	9,412.50	+1.12	+10.05	AUD/USD	0.7871	-1.22	+1.33
아연	2,890.00	+1.53	+1.21	USD/CAD	1.2607	+0.75	-0.57
옥수수	549.75	-1.30	+0.14	USD/BRL	5.5197	+1.92	+1.62
밀	675.75	-1.42	+1.58	USD/CNH	6.4872	+0.61	+0.42
대두	1,407.50	-1.28	+2.25	USD/KRW	1107.80	-0.40	+0.02
커피	140.05	+2.04	+8.31	USD/KRW NDF1M	1119.82	+1.10	+1.1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496	+12.01	+20.01	스페인	0.473	+8.40	+13.50
한국	1.893	+4.00	+3.80	포르투갈	0.363	+8.70	+12.50
일본	0.153	+2.70	+5.60	그리스	1.124	+11.20	+25.30
독일	-0.232	+7.20	+11.40	이탈리아	0.798	+11.30	+15.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